

관절형 로봇의 연속경로 제어를 위한
Interpolator 의 실현에 관한 연구

여 인 택

한국기계연구소

제어공학연구실

1. 서 론

로봇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정식들은 모두 비선형
 이므로 계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 로봇이 어떤 지시된 경로를 따라가게 하는
 방법으로는 경로의 중간에 많은 수의 점을 선정하여
 이위치들에 대한 로봇 관절각을 구하여 여러번의
 위치제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실현하고 있는 실정
 으로 이경우에 점들 간의 경로는 제어하고 있지 못
 하므로 점들 사이의 오차는 제어하지 못하여 점들
 사이의 오차는 제어하지 못하여 점들 마다의 속도가
 갑자기 변할 수 있으므로 운동방정식에 나타나는 중
 력항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위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비트-슬라이스(Bit-slice)구성 방법을
 제시하여 실용성을 입증해 보였다.

2. 본 론

문제의 구성 및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해 보면 로
 보트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때에는 여러가지 방
 법이 있다. 그런데 근래에 로봇의 운동을 나타내
 는 위치와 자세를 분리해서 실현 시키려는 시도도
 되고 있다. [1]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본연구에
 서는 연속경로제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각관절
 들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명령을 내기 위한 방안
 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구성하였으며 설명을 위해
 6축 엘보우 타입(Elbow Type)을 선택하였다.

위치제어를 위해서 1,2,3축을 자세제어를 위해 4,
 5,6축을 쓰게 되면 우선 위치제어를 위해 $\theta_4, \theta_5,$

θ_6 를 고정시키면 위치 PX, PY, PZ의 미소변화에
 대한 $\theta_1, \theta_2, \theta_3$ 의 변화량은

$$\begin{aligned} \Delta\theta_1 &= IJK^{-1} \Delta X \\ \Delta\theta_2 &= LMN \Delta Y \\ \Delta\theta_3 &= PQ \Delta Z \end{aligned}$$

로 부터 구할 수 있으며 자세제어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의 방법으로 $\Delta\theta_4, \Delta\theta_5, \Delta\theta_6$ 를 구할 수 있
 으나 이들은 3×3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야하므
 로 PX, PY, PZ의 변화량을 아주 작게하여 경로제어
 에 주안을 두고자하는 경우에 이들의 계산시간은 너
 무 크므로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적합하므로 다
 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본연구에서는 실시간적으로 기준이 되는 경로상의
 위치를 만들고 로봇의 끝점이 경로상의 계속해서
 변하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theta_1, \theta_2, \theta_3$ 를 $\delta\theta_1,$
 $\delta\theta_2, \delta\theta_3$ 를 기본단위로 자세도 $\theta_4, \theta_5, \theta_6$ 를 $\delta\theta_4,$
 $\delta\theta_5, \delta\theta_6$ 를 기본단위로 계속 구해나가는 일을 반
 복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와 자세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기준위치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직각표
 표계에서의 문제로 한정되므로 3차원직선보간과 2차
 원원호보간에 대해서 DDA방법을 사용한다. [2]

기준위치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는 수행속도
 와 시점과 종점에 대한 직각표표계로 나타낸 값이다.
 수행속도를 OUR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각각 $(X_s,$
 $Y_s, Z_s), (X_e, Y_e, Z_e)$ 라 하면 3차원보간의 경우 각
 각의 차의 절대값을 IVPX, IVPY, IVPZ라 하면 OVR-
 IVPX에 비례한 속도로 PX를 시점 X_s 에서 종점
 X_e 까지 변화시키고, PY는 OVR · IVPY에 PZ는
 OUR · IVPZ에 비례한 속도로 각각 로봇 위치오차
 의 최소절정단위 만큼씩 더하거나 빼감으로써 기준위

치들을 발생시키며 이때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가감 속을 행하는 것이 좋다.

식(1)에서 $\Delta X, \Delta Y, \Delta Z$ 가 생기는 원인은 기준위치가 계속해서 주어진 경로상에서 변하기 때문에 또한 자세제어를 위해 θ_4 를 움직이므로써 생기는 두가지의 원인이 있다.

이와같은 차이를 계속 보정해가며 경로제어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택하였다.

로봇트의 원점에서 끝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하면 $R^2 = a_1^2 + a_2^2 + a_3^2 + 2a_1a_3c3 + 2a_1a_3c34 + 2a_2a_3c4$ 이므로 θ_4 가 일정하다면 θ_3 에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 시점에서의 기준위치를 X_1, Y_1, Z_1 이라고 하고 $\theta_1, \theta_2, \theta_3, \theta_4$ 에 의해서 결정된 현재 로봇트의 위치를 X_2, Y_2, Z_2 라 하고 X_1, Y_1, Z_1 에 의해 결정된 R을 CR, X_2, Y_2, Z_2 에 의해 결정된 R을 GR이라 하고

$$\begin{aligned} \Delta CR^2_{i+1} &= CR^2_i - CR^2_{i+1} \\ \Delta GR^2_{i+1} &= GR^2_i - GR^2_{i+1} \\ HCR_{i+1} &= HCR_i + \Delta CR^2_{i+1} - \Delta GR^2_{i+1} \\ HCR_0 &= 0 \quad \text{이라 하면} \end{aligned}$$

θ_3 를 조정해 CR = GR이 되게 하는 일은 HCR_i = 0로 되게 하므로써 실현가능하다. θ_3 의 변화로 인한 R²의 변화는

$$\Delta R^2 = -2a_1(a_2s3 + a_3s34) \cdot \Delta\theta_3 \quad \text{이므로}$$

ARM = $a_2s3 + a_3s34$ 라 하면

$$\text{IF } HCR_i < 0 \text{ .AND. } ARM_i > 0 \\ \text{THEN } \theta_{3i+1} \leftarrow \theta_{3i} + \delta\theta_3$$

$$\text{IF } HCR_i < 0 \text{ .AND. } ARM_i < 0 \\ \text{THEN } \theta_{3i+1} \leftarrow \theta_{3i} - \delta\theta_3$$

$$\text{IF } HCR_i > 0 \text{ .AND. } ARM_i > 0 \\ \text{THEN } \theta_{3i+1} \leftarrow \theta_{3i} - \delta\theta_3$$

$$\text{IF } HCR_i > 0 \text{ .AND. } ARM_i < 0 \\ \text{THEN } \theta_{3i+1} \leftarrow \theta_{3i} + \delta\theta_3$$

와 같이 하므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

다음에 θ_2 를 사용해서 $Z_1 = Z_2$ 가 되게 하기 위해서 θ_2 의 미소변화로 인한 ΔPZ 의 변화를 보면 $\Delta PZ = (a_1c2 + a_2c23 + a_3c234) \cdot \Delta\theta_2 = ZAM \cdot \Delta\theta_2$ 이므로 동작범위가 ZAM이 항상 양의 값을 갖도록 제한하면

$$\begin{aligned} \text{IF } Z_2 \text{ .EQ. } Z_1 \text{ THEN } \theta_{2i+1} &\leftarrow \theta_{2i} \\ Z_2 \text{ .GT. } Z_1 \text{ THEN } \theta_{2i+1} &\leftarrow \theta_{2i} - \delta\theta_2 \\ Z_2 \text{ .LT. } Z_1 \text{ THEN } \theta_{2i+1} &\leftarrow \theta_{2i} + \delta\theta_2 \end{aligned}$$

가 되도록 θ_2 를 증감시킨다.

다음에 θ_1 을 사용해서 $IVPX \geq IVPY$ 인 경우에는 $X_1 = X_2$ 로 $IVPX < IVPY$ 인 경우에는 $Y_1 = Y_2$ 로 되게 하기 위해 θ_1 의 미소변화에 따른 $\Delta PX, \Delta PY$ 의 변화를 보면

$$\begin{aligned} \Delta PX &= -PY \cdot \Delta\theta_1 \\ \Delta PY &= PX \cdot \Delta\theta_1 \end{aligned}$$

이므로 만약 $IVPX < IVPY$ 인 경우라면

$$\begin{aligned} \text{IF } Y_2 > Y_1 \text{ THEN } \theta_{1i+1} &\leftarrow \theta_{1i} \\ Y_2 > Y_1, X_1 > 0 \text{ THEN } \theta_{1i+1} &\leftarrow \theta_{1i} - \delta\theta_1 \\ Y_2 > Y_1, X_1 < 0 \text{ THEN } \theta_{1i+1} &\leftarrow \theta_{1i} + \delta\theta_1 \\ Y_2 < Y_1, X_1 > 0 \text{ THEN } \theta_{1i+1} &\leftarrow \theta_{1i} + \delta\theta_1 \\ Y_2 < Y_1, X_1 < 0 \text{ THEN } \theta_{1i+1} &\leftarrow \theta_{1i} - \delta\theta_1 \end{aligned}$$

이 되도록 θ_3 를 증감시켜 간다.

다음에 자세제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자.

경우의 수를 줄여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90^\circ < \theta_2 + \theta_3 + \theta_4 < 90^\circ$$

$$0 < \theta_5, \theta_6 < 180^\circ \text{로 제한하면}$$

자세를 나타내는 식들로 부터

$$C5 = S1 \cdot ax - c1 \cdot ay$$

$$ag = S234 \cdot S5$$

$$C6 = C234 \cdot Oy - S234(c1 \cdot ox + s1 \cdot oy)$$

를 얻고 이를 만족하도록 θ_5 의 경우는

SMC = $S1 \cdot ay$ 로 한 경우에

$$\begin{aligned} \text{IF } C5 = \text{SMC THEN } \theta_{5i+1} &\leftarrow \theta_{5i} \\ C5 > \text{SMC THEN } \theta_{5i+1} &\leftarrow \theta_{5i} + \delta\theta_5 \\ C5 < \text{SMC THEN } \theta_{5i+1} &\leftarrow \theta_{5i} - \delta\theta_5 \end{aligned}$$

를 만족하도록 θ_5 를 조정하고

θ_4 의 경우는 $SS = S234 \cdot S5$ 라 하면

$$\begin{aligned} \text{IF } SS = a_y \text{ THEN } \theta_{4i+1} &\leftarrow \theta_{4i} \\ SS = a_y \text{ THEN } \theta_{4i+1} &\leftarrow \theta_{4i} - \delta\theta_4 \\ SS < a_y \text{ THEN } \theta_{4i+1} &\leftarrow \theta_{4i} + \delta\theta_4 \end{aligned}$$

를 만족하도록 θ_4 를 조정하며

θ_6 의 경우는 $CSC = C234 \cdot Oy - S234 \cdot (C1 \cdot Ox + S1 \cdot Oy)$ 라 하면

$$\begin{aligned} \text{IF } C5 = \text{CSC THEN } \theta_{6i+1} &\leftarrow \theta_{6i} \\ C5 > \text{CSC THEN } \theta_{6i+1} &\leftarrow \theta_{6i} + \delta\theta_6 \\ C5 < \text{CSC THEN } \theta_{6i+1} &\leftarrow \theta_{6i} - \delta\theta_6 \end{aligned}$$

가 되도록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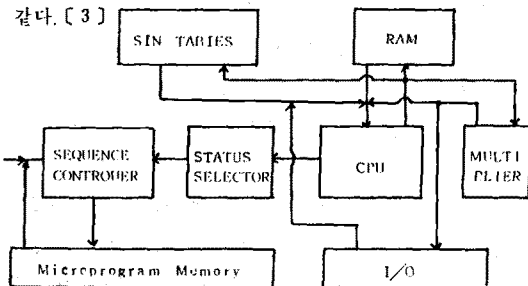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입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구

싱을 염두에 두었고 $a_1 = 500 \text{ mm}$, $a_2 = 400 \text{ mm}$, $a_3 = 40 \text{ mm}$, $-180^\circ < \theta_1 < 180^\circ$ 로 가정하고 $\delta\theta_1 \sim \delta\theta_6 = 0.006^\circ$ 로 하였다.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위치오차는 0.2 mm 이하의 오차만을 허용하고 자세도 실지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오차는 반복횟수가 많을수록, $\delta\theta_1 \sim \delta\theta_6$ 가 작을수록 적었다. 그러나 수행시간을 짧게할 경우에는 기준위치의 변화율이 크게 되어 $\delta\theta_1 \sim \delta\theta_6$ 의 크기를 크게 해야하며 너무 크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 로봇트가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서 위의 가정을 가지고 경로의 중간 어디에서나 0.2 mm 이하의 위치오차를 가지고 50 cm/sec 이 속도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전체 수행 단계(STEP) 수가 충분히 잡아서 100 단계라 하고 하드웨어로 구성할 때 동작할 수 있는 주파수를 5 MHz 로 생각하고 직각 좌표계에서 0.1 mm 변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1초에 50 cm 를 움직이는 일을 한다고 하면 직각좌표계에서 설정한 최소단위를 0.1 mm 로 생각할 경우 0.1 mm 의 증분이 발생하는 율은

$500 \text{ mm} \times 100 \text{ step} \times 1/0.1 \text{ mm} = 500 \text{ k step}$ 이므로 매 0.1 mm 의 변화당 10 회의 반복이 가능함에 본 연구에서는 5 회로 하였으므로 50 cm/sec 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디지털 회로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정확성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어떤 계산을 반복하는 경우에 오차의 누적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SIN과 COS Term들은 원칙적으로 Table로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의 구성에 있어서는 설계자 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설계를 위한 기본 블록도는 아래와 같다. [3]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6축 관절형 로봇트의 연속경로제어를 위한 보간기(Interpolator)의 알고리즘과, 이의 실현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의 실현을 위한 하드웨어 블록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은 경로오차는 0.1 mm 이며 수행속도는 50 cm/sec 이다. 특히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메인 프로세서(Main Processor)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M. Takano, "A new method of solution of synthesis problem of a robot and its application to computer simulation system", 14th ISIR, P261 ~ 268, 1985
- (2) Yoram Koren, "Computer Control of Manufacturing Systems", McGraw-Hill, 1983, P115 ~ 141
- (3) 여인택, 노태석,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인터플레이터", 전기학회논문지, Vol. 33 No. 2 1984. 2